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 복음서, 강의 6, 실행 중 예수님의 비유

© 2024 로버트 뉴먼과 테드 힐데브란트

좋아요, 우리는 여기서 공관복음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 예수, 유대적 배경, 주석 및 서술 소개, 저자 및 데이터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섹션인 비유, 또는 여기서는 예수 주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비유.

비유와 관련된 몇 가지 정의로 시작했습니다. 비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약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학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비유라는 단어의 사용 범위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약성서의 비유 연구는 약 한 세기 동안 엉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가들은 비유가 우화와 상당히 다르며 항상 한 가지 요점만 제시한다는 Julicher의 주장을 현명하지 못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영어 사전을 보면 사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유는 도덕적 태도나 종교적 원칙을 보여주는 짧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쁜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비유가 허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허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가 허구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무오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아무런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습니다. 비유에 대한 문학적 정의는 비유가 확장된 직유인 반면 우화는 확장된 은유입니다. 이 정의는 직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은유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구별하지 않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비유라는 단어에는 우화와 기타 여러 비유적 장르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직유, 은유 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유는 as 또는 like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명시적인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왕과 같습니다. 은유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비유는 어떤 항목, 사람 등이 어떻게 이야기와 같거나 이야기의 일부 요소와 같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확장된 직유입니다.

우화는 각 개념에 대해 명명된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 요소를 통해 개념 등을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John Bunyan의 Pilgrim's Progress는 아마도 주인공이 Pilgrim이라고 불리는 영국 우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일 것입니다. 진보, 의미가 바뀌어서 우리는 보통 오늘을 포착하지 못하지만, 진보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례자의 순례 또는 순례자의 천국 여행 등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종류의 이름을 가진 이 모든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례자가 그의 여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격려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적 여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유라는 단어의 신약성서 용법.

그림의 다소 넓은 장르에는 속담과 역설뿐만 아니라 좁은 정의의 비유, 우화, 비유, 샘플 비유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정의인 문학적 정의의 문장에 사용된 비유와 우화를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직유는 하나의 직유보다 길지만 이야기가 될 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반죽이 다 부풀게 될 때까지 넣는 여자에게 주신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액션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그녀가 반죽을 반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액션으로 가득 찬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의 그냥 문장이예요.

또는 겨자씨의 비유는 씨가 자라서 새들이 가지에 쉼 만큼 커질 때까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샘플 비유.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논의할 때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비유에서 그러하듯이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를 제시하기보다는 영적인 진리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땅의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지닌 씨를 뿌리는 것과 복음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샘플 비유는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샘플을 제공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유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비유를 만든 사람이 흥미를 갖도록 예술적으로 디자인했으며 스토리텔링의 여러 표준 장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mos Wilder는 Semeia의 기사에서 비유를 간략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로 묘사합니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긴 비유는 아마도 탕자 같은 비유일 것입니다. 20절 정도인데 성경 한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단편 소설은 일반적으로 최소 6페이지가 소요되므로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Unified는 여기저기서 총격을 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여러 줄거리나 그런 종류의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수의 배우가 있습니다.

Wilder는 주로 두 명의 주연 배우의 규칙을 언급합니다. 모든 비유가 두 명의 주연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유가 만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일부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두 명의 주요 배우는 아버지와 아들이고, 다른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대화가 특징입니다.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내레이터가 그들이 말한 내용을 설명하는 대신 다양한 캐릭터가 말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연속 개발. 다른 일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 저기 몇 개의 사이드 트랙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 여러 플롯을 갖지 않고 간략하고 통일된 결과일 것입니다. 3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비유가 어떤 일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의 비유에서, 나라를 돌려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통치자는 그의 종들에게 각각은 한 파운드를 줍니다.

따라서 그 중 10개가 있지만, 돌아올 때 10개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중 세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와 함께 5파운드를 벌었고, 한 사람은 그와 함께 2파운드를 벌었고, 한 사람은 그 물건을 땅에 숨겼습니다.

따라서 3의 규칙은 일을 기억에 남게 만들고 너무 복잡해지지 않게 만드는 다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되풀이. 종종 언어적 반복이나 주제별 반복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하기 쉽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유뿐만 아니라 동화 같은 스토리텔링 기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형제 셋이 있는데 한 형제가 가서 이려고 이려고 저려고 하다가 결국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 있는데, 그는 이것, 이것, 이것, 이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전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단어 등을 많이 얻게 됩니다. 이분법적 반대입니다. 검정 대 흰색.

이것은 모든 회색과 누앙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심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일반적으로 매우 좋고 매우 나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탕자의 비유는 9개의 동전이 분실되지 않고 1개의 동전이 잃어버린 동전에 있다는 점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 가운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고, 잃지 않은 양이 99마리 있습니다. 탕자 에서는 두 아들이 어느 정도 상실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양한 등장인물이나 사건 또는 그러한 종류의 사물 사이에는 매우 강한 반대, 즉 매우 강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 아주 갑자기 나타나는 일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 있다는 최종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역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와 관련하여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부자는 지금 구걸하고 있고 가난한 거지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두 가지 수준입니다. 그것들은 대개 세상의 이야기, 천국의 의미를 지닌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에 대한 유일한 실제 예외는 샘플 비유인 누가의 여섯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긴밀한 구조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는 비유입니다.

내가 본 최고의 작품은 John Sider가 1995년에 Zondervan에서 출판한 비유 해석(Interpreting the Parables)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유는 지상의 이야기와 그 다양한 특징을 하늘의 의미와 유사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특징. 그리고 언어적 비유를 위해 문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에서 비유는 테너이고, 원한다면 그것은 천상의 의미입니다.

그 테너가 전달되는 수단, 수단,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용어가 얽혀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는 승객을 태워주는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상 이야기는 천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는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 차량은 색상을 전달하고 벽에 붙이는 오일 또는 라텍스 베이스입니다. 따라서 차량, 이야기, 테너,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 이상의 유사점은 지상의 이야기와 천상의 의미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유사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우리가 방정식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원한다면 이것은 이것과 이것과 같습니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King Lear) 4막 1장 37행의 예를 들어 시작했습니다.

Lear는 불평합니다. 파리가 방탕한 소년들에게 있듯이 신들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이 차량입니다. 글썄요, 사실 들다예요.

이것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여기 무자비한 소년들이 있는데, 이는 초기 영어로 장난꾸러기나 그런 종류의 소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리를 대하는 방식은 신들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줄의 마지막 절반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포츠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 이 소년들은 재미로 파리를 죽입니다.

신들은 재미로 인간을 죽인다. 글썄요, 어쨌든 셰익스피어가 이 문제에 대해 리어의 견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너, 신과 인간의 관계, 탈것, 소년들이 파리를 대하는 방식.

닭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스포츠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점, 비유의 양쪽 모두에 적용되도록 점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원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학대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학대하고, 소년은 파리를 학대하는 식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이 어떻게 도표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말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 밀과 가라지의 예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의 원수는 그 위에 잡초를 뿌립니다 .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사람의 종들은 당장 잡초를 뽑아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이고, 그것이 차량입니다. 테너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글을 쓰신 이후의 미래 역사의 특정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리고 적이 나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찢으려는 욕망, 주인이 그것을 추수 때까지 연기해야 하는 것 등이 비유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은 위의 이야기입니다. .

예수님은 원수가 잡초로 농작물을 망쳐 이웃을 괴롭히려는 지상의 농업 이야기를 통해 하늘의 주체인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사한 점: 이것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멈춰서 그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은 원수에게 대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주인이 하는 일과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두신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사점은

적이 밭에 잡초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기 백성을 동일한 세계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종류의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아마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4~5개의 중요한 유사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비유로서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공관복음의 비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요한도 여기에 넣을 것입니다. 원하는 경우 내용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독교론적인 비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 다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1장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에 의해서만 패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보다 더 강한 사람에 의해서만 패배할 수 있습니다. : 암시, 예수님.

좋아요, 그렇다면 이 악마 퇴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괜찮으시다면, 그렇죠? 또는 마태복음 21:14-22에 나오는 버림받은 돌.

거기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의 시편 118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축할 돌은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주된 모퉁잇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을 청중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돌이십니다. 모양이 틀려서 기각된 것인지, 기대한 모양이 아닌 것인지, 그런 것은 추측일 것이다.

그게 내 추측이야. 건축자들은 이 특별한 시기에 유대 국가에 있었던 권력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 돌은 건축가의 계획에 있어 주요 돌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머릿돌이요, 머릿돌이요, 머릿돌이니라. 그런 종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론적인 비유입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사람은 양 우리로 들어가는 길 같은 곳이에요. 선한 목자도 같은 구절에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포도원지기의 아버지이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론적 비유의 예가 될 것입니다. 원한다면 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18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발견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그와 같은 자들을 염려하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 마리가 길을 잃더라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그것을 찾았을 때, 네 친구들과 이웃들이 너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찾으면 불평하기보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도 같은 종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를 이용해서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과 당신은 일종의 바리새인들에게 몰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인물, 즉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 아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여기서의 시도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실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용서와 자비의 비유. 무자비한 종,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주인에게서 이 모든 공흠을 받고도 자기에게 빛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종.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했지만 그중 일부는 한 시간만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 불평합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채무자. 두 빚을 모두 탕감해 준 대금업자에게 어느 채무자가 더 사랑을 보일 것인가? 글썄요, 당신은 빛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빛이 적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이 큰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큰 빛을 탕감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녀는 정말 그랬어요 등등.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들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주인에 대한 노예의 관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에게 빛진 것임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예 제도가 없는 문화에서는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실제 특징을 묘사합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 떡을 구하시는 아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한밤중의 친구, 누가복음 11장.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재판관이 불의한데도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나쁜 존재로 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비유. 낡은 옷에 새 조각이 있거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있는 것 등은 여기에 새로운 것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 복음 안의 거듭남, 그런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등불과 말의 비유. 램프는 무엇입니까? 방을 밝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 위에 부셀을 두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빛진 자들의 빛을 줄여서 그 빛을 탕감해 주는 빼뚫어진 상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빼뚫어진 상사, 즉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불성실한 윗종과 닮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하급 하인에게 말긴다.

달란트 비유와 파운드 비유는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맡기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우리의 책임과 실제로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안전하게 사용하고 숨기려는 위험한 유혹을 받습니다. 앞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들었던 품꾼의 비유도 용서와 자비의 비유였을 뿐만 아니라 청지기 직분의 비유이기도 했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따르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를 원하고 상속자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대와 거절의 비유. 장터에 있는 아이들과 장례 놀이도 안 하고 결혼 놀이도 안 하는 완고하고 게으른 아이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장례를 치는 요한, 혼인 잔치를 하는 예수님과 같고 군중은 게으른 아이들이다.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의 밭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회개하여 행하는 자와, 하겠다고 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에는 거역하다가 회개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대한 만찬과 왕의 아들의 결혼.

우리는 여기에서 왕자의 결혼에 대해 차차 살펴볼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메시아적 연회라는 개념과 유사한 주제를 사용합니다. 복음을 제안하는 것은 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으며, 초대받은 일부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재림에 관한 비유. 시체 속의 독수리. 광야에서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썄요, 당신은 1~2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독수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체 근처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오는 곳에 바로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새 잎과 새싹이 여름의 도래를 알리는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끝이 오기 전에 여름의 징조를 예고합니다. 집주인과 도둑. 원한다면 경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당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지기의 비유, 주인이 잔치에서 돌아올 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사람의 비유 등등.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기다리는 종들은 다소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경우를 대비해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올리브유를 가지고 있고,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고, 예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때가 되어도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고와 심판에 관한 비유의 목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뿌리에 있는 도끼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유는 나무를 벨 준비가 되어 있는 농부를 묘사하며 그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적절하게 사용해

본 여러분 중 적어도 도끼 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자세, 올바른 거리 등을 얻기 위해 공격을 하다가 다시 뒤로 당겨서 때립니다. 예수님은 도끼가 이미 뿌리에 박혀 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또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곡식을 까불러 오는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손에는 키를 들고 밀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심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소금의 비유, 불과 소금과 평안의 비유, 법정에서 나가라는 예수님의 권고, 몸의 빛인 눈의 비유, 눈을 보면 보는 바와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고 있으므로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 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한다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개념과 다소 유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눈에 이미 얼룩이 있는 경우 눈을 수리하여 얼룩을 제거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는 기초 없이 건축하므로 그들의 공력이 물에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며, 기본적으로 내 말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건축업자 등.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빈 집은 귀신이 누군가에게서 쫓겨났을 때 마치 무단 거주자들이 집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비어 있으니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채우지 않도록 보관하고 보호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 국가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께서 심지 아니하신 모든 식물은 뽑힐 것인데, 이는 또 다른 종류의 경고와 심판의 비유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종류의 비유로 연기된 것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타워 건설자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은 다음 해당 상황에서도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은 매우 비슷한 종류의 비유입니다. 10,000명의 병력을 가진 왕이 20,000명의 병력을 가진 왕과 전쟁을 하겠느냐? 글썄, 그는 적어도 매복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아마도 숫자를 바꾸어 어쨌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으면 가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쟁을 해서 전멸되기보다는 평화를 이루십시오. 지대를 내기 싫어하고 원하면 상속자를 죽이려 하는 악한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의로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실제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천국 비유와 가라지 비유, 자라는 씨, 겨자씨, 누룩, 보배, 진주, 그물의 비유가 있고 그 마지막에는 옛 보물과 새 보물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왕국의 성격에 관해 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암시하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추수 등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진행, 아마도 다양한 사회에서 전형적인 복음의 진행,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누가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한두 마디 말했을 뿐이고, 그 비유들을 다시 나열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어리석은 부자, 잔치의 가장 낮은 자리,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누가복음 10-18장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많이 말하지 않은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는 비유로 행동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두 가지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하는데, 그것은 꽤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야? 그 사람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뇨, 그건 연기된 비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해마다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일찍 무화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 위에 무화과.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의롭다고 공언하지만 그 열매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표현한 비유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비유는 매우 비슷한 비유인데, 사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내용과 그 결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비유와 어느 정도 얽혀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오용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오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권을 오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비유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언급한 것처럼, 이 시리즈의 앞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이 찾는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며, 그가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다는 말라기의 사상을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12세의 예수가 성전에 간 것은 아마도 일종의 비유로 표현된 것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실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를 아버지의 집 등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아마도 연기된 비유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의 성품을 확실히 알고 있던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라 하십니다.

내 생각에 지난 세기의 상상력이 풍부한 개혁 신학자 중 한 명은 현재 내 마음에서 이름이 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세례는 정결함, 진노를 쏟아 붓는 것, 압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그림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등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는 깨끗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일종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의 설명은 이 방향을 가리키며, 이는 예수에 대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구속에 관한 것이므로 치유도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셨고 나도 그러하니라. 내 생각에 다니엘 구절에 대한 암시인 인자는 안식일, 곧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따라서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입법을 할 사람입니다. 옛적부터 늘 계신 분께서는 그에게 영원하고 보편적인 왕국을 가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점토를 이용한 치유는 꽤 흥미로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실을 뽑아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바르셨을 때 그 사람의 시력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창세기의 아담 창조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히브리어 동사에는 점토를 빚는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땅의 흙을 취하여 아담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성된 용어인 킹제임스(King James)는 실제로는 점토, 도자기 등을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글씨를 쓰는 것은 요한복음 7:5, 3:8, 11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사건에 대한 원문적 질문도 있지만, 구전으로 알려지고 지나치기엔 너무 좋아서 들어간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신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추측이지만, 이러한 것 중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잠언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글썄,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뒤집어서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승리의 부상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름부음은 그의 사역 중에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종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형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둘러보기입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신약성서의 모든 비유를 그 특정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돌아와서 특정한 것을 하나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14절의 혼인 잔치 비유를 살펴보고 이 특별한 경우에 비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좋아, 딱 11시니까 여기로 뛰어들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이를 다루어야 합니다.